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1-1 (1월/2월)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1
2. 주요 특징	2
3. 개별 사설 특징	6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1.19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2	1.21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3	1.22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고조기를 열어 나가자
4	1.26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경제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자
5	1.28	모두다 필승의 신심 드높이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에 총매진하자
6	1.30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새로운 5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자
7	2 5	당대회가 가리킨 진군방향으로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나아가자
8	2 8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9	2 14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
10	2 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수행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11	2 20	경제지도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자
12	2 22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방향타역할을 잘해나가자
13	2 24	황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질과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
14	2 26	혁명적 사상공세로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2

주요 특징

- ◆ 8차 당대회 개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첫 번째 사설(1.19) 발표 지연
 - 당대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노선과 방침을 사설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 고려
- ◆ 1월 사설은 당대회 결정 관철, 2월 사설은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사설들이 대부분 차지
 - 특히,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의 성과를 독려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형성
-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목표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자세히 제시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 :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 구축
 - 5개년계획의 목표를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이 아니라 그 토대 구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 유의
 - * 이런 맥락에서 5개년계획 수행 기간에는 인민생활 향상 대신 인민생활 안정 또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
 -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 또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 목표임을 시사함으로써 9차 당대회에서 5개년계획을 결산한 다음 단계의 목표임을 암시
 - * 경제발전 로드맵 추정: (현재) **새로운 발전기**,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 (향후 5년) 5개년계획 추진으로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구축기**(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 완비, 수입의존도 축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 정상화, 인민소비품 증산 등 인민생활 안정) → (향후 5년 이후)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부흥발전기**(새로운 높은 단계) → → → (궁극적으로) **공산주의**(“꿈과 이상의 실현” 단계)

- 현재를 고난극복 투쟁의 결과로 이룩한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제일주의를 ‘애국’ 담론과 연계하여 주민동원의 논리로 활용

◆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 테제, 즉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시사하는 대목에서 후자만 언급**

- 2019년 3월 6-7일 개최한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에서 밝힌 수령 신비화 금지와 같은 맥락에서 절대적 지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당의 수반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하고 대표하는 혁명의 최고뇌수,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 **김정은의 영군체계와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사업의 결과를 “노동당화된 혁명적 당군”이라는 표현으로 정리**

- ‘당의 군대’를 내용적으로는 ‘노동당화된’이라는 표현과 형식적으로는 ‘당군’이라는 표현으로 정의

◆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3대 투쟁구호(정치이념) 실천 촉구**

- 북한은 3대 투쟁구호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쟁목표와 임무는 혁명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투쟁이념과 원칙은 절대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3대 투쟁구호의 장기 지속 가능성 예고
-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시기부터 이어져 온 3대 투쟁구호의 혁명전통성과 계승성 강조
- 이민위천=혁명특유의 지도사상, 일심단결=혁명특유의 전진방향, 자력갱생=혁명특유의 발전방식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관철 촉구

◆ **“허황한 계획” 수립을 극복하자면서 “대담하고 통이 큰 계획”을 주문하고 있어 계획수립 방향과 관련한 경제부문 간부들의 혼선 예상**

- 또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총발동되고 만짐을 지고 뛰어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주문

- ◆ **계획 작성과 수립 과정에서 대중을 계획 수립의 주체로 만들어 계획 집행에 대한 대중의 책임성 강화**
 - 계획 집행의 주체인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계획 수행 미달 시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할 여지도 존재

-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노동당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
 - 또한 세계가 경제전략 실현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5개년계획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제재무용론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현

- ◆ **국가적 자력갱생과 계획적 자력갱생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으로 통합**
 -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상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계획을 철저히 수행해야 경제 전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국가의 통일적 장악과 통제, 전략적 작전과 지도하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할 때 자립적 발전능력과 주체적 힘이 증대한다는 논리 활용

- ◆ **8차 당대회에서 표명한 조건부 핵불남용 입장과 달리 조건부 선제핵사용 의지 시사**
 - *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공화국령토밖에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이라는 암시적 표현으로 수위 조절

- ◆ **군사력 강화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확고히 담보”라는 표현 사용**
 - 이전의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우호적 대외여건 조성’과 달리 군사적 역지력 강화를 통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고립주의적 대외전략 시사

- ◆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인 금년도 성과에 대한 절박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경제간부들의 문제점 지적 (김두일 경제부장 전격 경질 사유 시사)**

- * “올해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할 수 없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
- * “일부 경제일군들이 객관적조건에 포로되어 사업계획을 적당히, 땅짚고 헤엄치는 정도로 낮추어 세운 것은 소극성과 보신주의의 집중적 표현이다”, “첫해 진군부터 계획을 낮추면 우리의 전진속도가 떠지게 되고 당대회결정이 종이장우의 글줄로만 남게된다”

◆ 경제계획 수행에 대한 검찰 등 법기관들의 “법적감시와 통제역할 강화” 주문

- 이와 관련하여 8차 당대회 시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신설한 법무부의 역할에 주목

◆ 경제사업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 현상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

- ▲경제사업 계획 및 작전에서 경제법칙과 원리를 무시하는 현상 ▲관건적인 고리에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고 여기저기에 널어놓는 현상 ▲현 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경제사업을 주관적으로 조직하여 사회적 노동의 낭비와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

◆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이 되는 2022년을 당면 정치일정 목표로 설정

- 5개년계획을 완료하는 2025년을 정치일정 목표로 삼기에는 비교적 시간차가 크므로 상기 두 가지 정치행사를 당면목표로 정하고 올해의 성과를 독려하기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3

개별 사설 특징

1월

①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1.19)

-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한 것을 기념하는 사설
 - 북한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노동당 8차대회에서 기존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복원하고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
 - * 노동당 제1비서(2012. 4-2016. 5)→ 노동당 위원장(2016. 5-2021. 1)→ 노동당 총비서(2021. 1~)

-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 테제, 즉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시사하는 대목에서 후자만 언급
 - 2019년 3월 6-7일 개최한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주문과 같은 맥락에서 절대적 지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당의 수반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하고 대표하는 혁명의 최고뇌수,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 지난 9년간 김정은의 ‘혁명위업’을 선전하면서 혁명위업 계승자로서 김정은의 유일성 강조
 - 혁명위업: ▲지도사상으로써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당, 국가, 군대를 강화, 발전

- 김정은의 영군체계와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사업의 결과를 “노동당화된 혁명적 당군”이라는 표현으로 정리
 - ‘당의 군대’의 의미를 내용적으로는 ‘노동당화된’이라는 표현으로, 형식적으로는 ‘당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

○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체 인민들과 당원들이 견지해야 할 과제들 제시

- (당중앙을 두리로 한 일심단결) ▲김정은을 두리로 굳게 단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 확립 ▲김정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절대적인 신뢰심 간직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 완수
-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정치사상적 위력과 내적동력 강화 ▲비판과 사상투쟁, 학습 강화 및 직능대로 일하는 혁명적 규율 철저히 확립 ▲근로단체사업을 당사업의 일부로 삼고, 특히 청년동맹에 대한 사상 강화
- (8차 당대회 결정관철 투쟁으로 총궐기, 총매진) ▲당의 결정지시 무조건 관철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로 틀어쥐기 ▲군대를 노동당화된 혁명적당군,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 국가와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준비하기 ▲새로운 ‘조선식문명’ 창조
- (당원들의 핵심적, 선봉적 역할 수행) ▲전승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하기 ▲높은 실적 창출과 대중의 모범되기 ▲당대회 결정관철 초기부터 사업능력과 열정 발휘하기

②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1.21)

○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철저한 학습을 독려하는 사설

- 북한은 8차 당대회 종료 직후 전당적인 학습을 통해 당대회 결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과정 마련

○ 당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만들기 위한 학습목표들 제시

- * “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8차 당대회의 기본사상과 기본정신 깊이 체득) ▲심중한 결함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이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고 개선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을 각인 ▲패배주의와 보신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 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 척결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단호히 제거

- (주어진 정책과업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경제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제전선의 주타격방향 선택과 집중,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에 모든 경제사업 지향,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결정적 대책 수립 등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실제적 발전을 통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기여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은 국방과학기술 향상과 군수생산목표와 과업 무조건 수행 등으로 경제건설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③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고조기를 열어나가자(1.22)

-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3대 투쟁구호(정치이념) 실천을 촉구하는 사설
 - 북한은 3대 투쟁구호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쟁목표와 임무는 혁명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투쟁이념과 원칙은 절대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3대 투쟁구호의 장기 지속 가능성 예고
 -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시기부터 이어져 온 3대 투쟁구호의 혁명전통성과 계승성 강조
 - 이민위천=혁명특유의 지도사상, 일심단결=혁명특유의 전진방향, 자력갱생=혁명특유의 발전방식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관철 촉구
- 3대 정치이념은 혹독한 도전과 장애 속에서 자체의 힘과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객관적 조건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선전
- 3대 정치이념 실현을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충성으로 받들기)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 설계 및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기풍 확립 ▲인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사업총화원칙 철저히 견지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모든 문제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풀어나가는 기풍 확립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 부패행위를 비롯한 반당적, 반인민적 요소들 단호히 척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확고히 고착
 - (당에 대한 인민들의 일편단심 품모와 미덕 높이 발양) ▲당중앙 결사옹위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및 일사분란한 혁명적 기강 확립 ▲당이 정한 기일 내에 당이

- 부여한 과업 완벽히 집행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어긋나는 행위와의 견결한 투쟁 전개 ▲집단주의 기풍 발양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를 위한 결사투쟁 전개)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 전개 ▲국가이익을 중시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 ▲인민경제계획을 법으로 여기고 시달된 과제 철저히 관철 ▲과학기술에 의거한 문제 해결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에 기초한 경제사업을 추진하여 외부적 영향에 흔들림 없는 경제운영의 정상화
 - (당조직과 일군들의 역할 강화) ▲친인민적, 친현실적 당사업 철저히 전개 ▲5개년 계획 수행 고무 추동 ▲인민들이 실제적인 복리, 사회주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당적 지도 강화

④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경제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자(1.26)

-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심도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사설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실현 가능한 목표”이므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적 성과 도출 독려
- “허황한 계획” 수립을 극복하자면서 “대담하고 통이 큰 계획”을 주문하고 있어 계획수립 방향과 관련한 경제부문 간부들의 혼선 예상
 - 또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총발동되고 만짐을 지고 뛰여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주문
- 계획 작성과 수립 과정에서 대중을 계획 수립의 주체로 만들어 그들의 헌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도
 - 계획 수립 및 수정·보충 시 철저한 대중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가운데 무조건 관철을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계획 미달 시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조치
- 계획 수립의 원칙들 제시
 - (5개년계획 기간에 자기 부문과 단위사업들을 근본적으로 혁신) ▲구체적인 단계별, 연차별 계획 작성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계획을 허황하게 세우거나 적당히 세우는 현상 극복 및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전투계획 수립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넓고 구태의연한 관점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계획, 대담하고 통이 큰 계획 수립

- (자기의 힘과 기술에 기초하고 내적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작성)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등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묘수를 계획에 반영 ▲미래의 조건과 환경들을 예견하고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활기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작전 수립
- (대중의 지혜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상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전투목표 수립) ▲대중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는 것을 철칙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에 의하여 실현되는 계획 수립 ▲대중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충함으로써 대중의 것으로 만들고, 무조건 관철할 수 있게 만들기
- (명확한 임무분담) ▲당대회 결정 관철에서 수행해야 할 자기 과업 인지하기 ▲직능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세우기 ▲명확한 임무분담과 정확한 일일책임량 확정하기
- (수시 하달되는 당의 노선과 방침들 즉시 반영) ▲전투계획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완벽하게 집행 ▲새로운 정책과업 하달 시 기존의 과업을 중단하는 ‘오분열도식 일본새’ 척결

⑤ 모두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총매진하자(1.28)

- 8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에 입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철을 촉구하는 사설
 - *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역사적진군에서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은 경제전선이다”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업”으로 규정
 - 5개년계획 수행 과정은 “원썩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동반하므로 결사전을 벌여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는 안정된 경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일으킬 것을 주문
 -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한 5개년계획을 수행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 정상화, 인민소비품 증산을 통해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전도 (로드맵) 제시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노동당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
 - 세계가 북한의 경제전략 실현 여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5개년계획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타인의식 성향을 노정
 - 이러한 북한의 타인의식은 제재무용론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근거

- 지난해 투쟁의 결과로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가 열렸다고 선전
 -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애국주의’와의 관련성이 높은 정치담론으로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강조
 -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 앞으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애국’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는 정치담론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

-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과제들 제시
 - (계획 완수에 대한 확신 갖기) ▲5개년계획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투쟁목표이므로 얼마든지 점령 가능 ▲당의 현명한 영도, 인재대군, 일심단결에 대한 자신감 갖기
 -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찾고 반드시 집행하는 기풍 발휘) ▲생산의 정상화와 지속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 타산과 분석을 통해 동원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 수립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의 잠재력 총동원,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 제고, 창조적 적극성 최대 발양을 위한 올바른 방법론 탐구·적용 ▲지난 투쟁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편향을 시급히 극복 ▲말은 과업 무조건 수행 ▲예상외의 상황 발생에 대한 주동적 돌파대책 수립 및 완강한 대처 ▲일별, 주별, 월별 계획수행정형 총화 및 미진 사업 진척
 -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이자 주제) ▲5개년계획 기간 중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으로 발전 ▲자기 부문과 단위의 이익보다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 우선시 ▲일시적 이익보다는 전망적 이익 중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및 원가 절감과 증산투쟁 전개

- (과학기술력 증대를 통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확실한 전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5개년계획 기간 현실적인 과학기술발전목표 수립 및 실속있게 집행 ▲과학연구부문에서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긴절한 문제들을 중점과제, 연구 과제로 정하고 역량 집중 ▲과학기술자들과 생산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 강화를 통한 생산실천에의 즉시 도입
- (일군들의 능동적이고 박력있는 전투조직과 지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전투 과업의 완벽한 수행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 ▲전투현장에서 좌지를 정하고 주동적이고 치밀한 작전과 지휘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여 대책을 마련 ▲난관이 조성되면 과학기술자들,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해결방법 모색
-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최대 고양)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 강화 ▲박력있는 조직정치사업 전개 및 방향타역할 수행 ▲모든 문제를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기

⑥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새로운 5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자(1.30)

- 자력갱생을 통한 5개년계획 수행을 촉구하는 사설
 - ▲현재의 난국 타개 ▲조속한 인민생활 안정·향상 ▲외부적 영향에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자력갱생의 필요성 강조
- 현재 = 새로운 발전의 시대 =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 =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라는 담론프레임 형성
 - 현재를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이자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 만들어 낸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로 규정
 - 이는 자력갱생정신의 분출 정도와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의 영광 정도가 비례한다는 논리를 전개, 주민동원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활용
- 국가적 자력갱생과 계획적 자력갱생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으로 통합
 - 모든 부문이 맞물려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전반의 원활한 운영은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들이 계획을 철저히 수행해야 가능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국가의 통일적 장악과 통제, 전략적 작전과 지도하에 진행할 때 자립적 발전능력과 주체적 힘 증대

○ 자력갱생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들 제시

-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에 의거하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 견지)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세계를 따라 앞서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기 위한 분발 ▲생산잠재력 최대 발양 및 원료, 자재의 국산화 사업 부단히 심화 ▲원가와 질경쟁에서 타국을 앞서기 위한 노력 경주 ▲국내의 생산단위, 개발단위, 연구단위들 간의 긴밀한 협동으로 문제 해결 ▲수입병을 비롯한 사상적 문제점 척결
-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제고) ▲8차 당대회의 요구에 맞는 경제사업 조직 집행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의 정비발전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 ▲현실적인 지도 및 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 옹계 결합 ▲국가의 경제규율과 질서 엄격히 준수
- (국가이익 우선시 및 과학기술에 의거한 만사 해결 기풍 확립)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 작성시 국가이익 저축 여부 고려 ▲전력을 낭비하고 원가 대 실리가 맞지 않는 설비와 공정들을 폐기하거나 정리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총력 집중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공유, 보급, 도입하는 기풍 철저히 확립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3

개별 사설 특징

2월

① 당대회가 가리킨 진군방향으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자(2. 5)

- 1월 전투목표 달성을 축하하면서 당대회 결정관철 투쟁을 독려하는 사설
 -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1월 목표를 수행하였다고 선전
- 8차 당대회 이후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에까지 당대회 결정사항 학습이 진행되었음을 공개
 -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서 당대회문헌과 결정접수토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단위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진군방향, 즉 부흥발전의 길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충직하게 받들기)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드는 길은 자존과 변영, 사회주의 승리의 길임을 명심 ▲당중앙의 유일영도체계 더욱 튼튼히 확립 ▲당의 결정과 지시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확립 ▲당대회 결정과업 관철을 통한 당의 권위 옹호 ▲당의 위업에 충직한 인민의 혁명적 품모 과시
 - (사상관점과 일본새, 사업체계와 방식 혁신) ▲실제적인 변화, 실천적인 성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 검증 ▲보신주의, 패배주의, 수입병과 같은 낡은 사상과 단호히 결별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고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신 ▲전략적인 시야와 안목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고 사업을 전망성, 현실성있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
 - (인민경제 중요 공업부문의 성과를 경제건설 전반으로 확대) ▲5개년계획 수행의 관건적 고리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경제건설의 쌍기둥)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과 능력 확장을 통해 철강재 증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업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화학제품 증산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높이 발휘)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중앙집권적 자력갱생 위력 과시 ▲국가이익 우선시 ▲과학적인 자력갱생 확산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당대회가 제시한 진군방향으로 나아가는 키잡이역할 수행 ▲당사업을 친인민적, 친현실적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 등

②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 불패이다(2.8)

○ 건군절(정규군 창건) 73주년(1948.2. 8) 기념 사설

- 8차 당대회에서 “혁명적 당군”을 표방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건군절이므로 당의 군대에 초점
- 특히, “조선로동당화된 불패의 혁명무력”이라는 표현을 사설의 첫 문구로 사용
 - * “우리 인민군대를 철저히 조선로동당화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이 있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강대함과 창창한 전도가 있다”

○ 혁명에서 당과 군의 불가분리관계를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당적 영도의 정당성 역설

- * “혁명적당은 군대를 틀어쥐어야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고 혁명군대는 당의 령도를 받아야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위용떨칠수 있다”

○ 혁명적 당군화와 함께 정치사상강군화와 군사기술강군화를 통해 최정예당군으로 만드는 것이 군력강화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당군건설업적 선전

- (정치사상강군화) ▲군대를 조선노동당화할데 대한 당군건설노선 제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발전
- (군사기술강군화) ▲현대전에 맞는 군사전략전술 발전 ▲훈련열풍을 통한 전투력과 실전능력 제고 ▲조선노동당식 전략무기의 탄생과 비약적 발전

○ 8차 당대회에서 표명한 선제핵불남용 입장과 달리 조건부 선제 핵무기 사용 의지 시사

- *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공화국령토밖에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이라는 암시적 표현으로 수위 조절
- 군사력 강화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확고히 담보”라는 표현 사용
- 이전의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우호적 대외여건 조성’과 달리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통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고립주의적 대외전략 시사
- “조선노동당화된 혁명적 당군”의 위상과 역할 선전
-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제일결사대, 제일근위대) ▲당중앙 결사옹위와 당의 구상과 결심 실천이 모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의 총적 지향
 - (최강의 군사력으로 사회주의위업 담보) ▲김정은군사전략전술과 주체전법 소유 ▲강력한 전쟁수행능력 구비
 - (당의 사회주의건설 구상 앞장에서 실현) ▲여명거리, 양덕온천 등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종자혁명과 간척사업의 선구자 ▲방역전선에서의 헌신 ▲수해지역 살림집 건설 등
-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군대의 과업들 제시
-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철저히 확립) ▲당중앙의 명령에 절대복종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 엄격히 확립 ▲자기 영도자밖에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되기 ▲당중앙 결사옹위 ▲당의 명령과 지시 무조건 접수 및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
 - (국가방위의 주체, 인민의 수호자로서의 본분 수행) ▲오중흡7연대호칭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힘있게 전개 ▲공세적, 다각적, 입체적 사상교양사업 전개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으로 준비 ▲모든 군종, 병종의 세계 최강화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좋은 일 찾기
 -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과시) ▲검덕지구개발사업 등 인민군대 특유의 기적과 혁신 창조 ▲주둔지역 시, 군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군민협동작전 주도 ▲인민군대의 전투적 기질을 따라 배워 당의 노선과 정책 무조건 관철 ▲전사회적으로 군사중시기풍 확립 및 인민군대 원호사업을 국풍으로 높이 발휘

③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2.14)

-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촉구하는 사설
 - 8차 당대회 종료 이후 불과 1개월 여 만에 개최한 회의에서 5개년계획 첫해 과업의 철저한 수행 독려
 - *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진군보폭을 크게 내짚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고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기어이 이루어내자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다”
-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인 금년도 성과에 대한 절박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경질당한 김두일 경제부장 등 경제간부들의 문제점 지적
 - * “올해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할 수 없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
 - * “일부 경제일군들이 객관적조건에 포로되어 사업계획을 적당히, 땅짚고 헤엄치는 정도로 낮추어 세운 것은 소극성과 보신주의의 집중적 표현이다”, “첫해 진군부터 계획을 낮추면 우리의 전진속도가 떠지게 되고 당대회결정이 종이장우의 글줄로만 남게된다”
- 8기 2차 전원회의 개최의 의미를 설명
 - (책임완수 각성의 전환적 계기)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사상관점과 일본새 일소 및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지향
 -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위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 마련) ▲올해의 사업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작성하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큼직한 일감들 새롭게 확정 ▲대담하고 혁신적인 경제사업 전개를 당적으로 끝까지 지원한다는 김정은의 확약
- 경제계획 수행에 대한 검찰 등 법기관들의 “법적감시와 통제역할 강화” 주문
 - 이와 관련하여 8차 당대회 시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신설한 법무부의 역할에 주목

○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과제들 제시

- (높은 당적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 견지)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 결사관철
 - * “당이 준 과업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
- (올해 전투목표 점령을 위한 총공격전 전개) ▲올해 전투목표를 누구나 만짐을 지고 뛰여야 수행할 수 있게 혁신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현물지표별로 엄격히 수행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 확립
-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제고)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고유한 자기 기능을 복원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 ▲권한타발, 조건타발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던 낡은 타성에서 탈피하여 난관과 애로 극복을 위한 사업 대담히 전개 ▲경제발전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 역할 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의 생산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소비적 연계 추진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기술개건 상의 문제 해결 ▲철저한 계획규율 확립과 생산총화 수행
-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므로 무조건 수행 의무 ▲법제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부문법 채택 ▲검찰기관 등 법기관들의 역할 제고를 통한 인민경제 계획 즉시 시달 및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정확히 집행하도록 감시와 통제 강화 ▲비사회주의 행위와의 법적 투쟁 강력 전개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강도 높은 법적투쟁 전개
- (당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과업 수행에 총집중)

④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2.16)

○ 김정일 79회 생일을 기념하는 사설

- 김정일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지도자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현한 지도자로 부각
- 김정일을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로 빛낸 희세의 정치원로 ▲독창적인 사회주의이론을 당대에 거창한 현실로 전변시킨 실천가형의 위인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낼 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역량을 만든 불세출의 위인으로 선전 ▲우리식 사회주의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역사를 수놓아 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다진 절세의 애국가

- 김정일 시대를 특징지웠던 업적보다는 김정은 시대와 관련이 있는 업적들을 중심으로 열거
 - ‘선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담론들 중 ‘선군의 기치’만 한차례 언급
 - 대신, 김정은 시대와의 관련성이 높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력갱생’과 관련한 업적들을 중시
-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이 견지해야 할 과제들 제시
 - (김정일의 사회주의건설사상과 업적 옹호고수 및 철저 구현) ▲김정일의 강령적 지침들을 항구적으로 받들기 ▲김정일의 유훈 무조건 관철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김정일 두리에 일심단결 ▲김정은의 안녕과 권위 백방으로 보장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에 일사분란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 철저히 확립 ▲당의 과업 무조건 관철
 - (당사업과 국가활동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히 구현) ▲김정은의 위민헌신 뜻을 깊이 체득하고 구현하기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며 인민들의 반영과 평가를 모든 사업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기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어긋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등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요소와의 투쟁 강화
 - (8차 당대회 결정관철 투쟁에 총매진)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결사투쟁 전개 ▲사업 실적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 검증받기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적극 추진

⑤ 경제지도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자(2.20)

- 5개년계획 수행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사설
 - 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일군들의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 태도 질책
 - * “조건과 환경에 빙자하면서 걱정이나 하고 우는소리를 하며 일을 소극적으로 보신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일군의 자세가 아니다”
- 사설의 전반적 흐름 상, 엄격한 생산총화를 통한 상벌적용 등 경제지도일군들에게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이 주류를 형성
 -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수자에 근거하여 책임한계를 똑똑히 따질수 있게 생산 총화를 실속있게 하며 총화결과에 따라 상벌적용을 공정하고 명백하게 하여 한다”

- *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결사의 각오로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중임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기대에 확실하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경제사업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 현상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

- ▲경제사업 계획 및 작전에서 경제법칙과 원리를 무시하는 현상 ▲관건적인 고리에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고 여기저기에 널어놓는 현상 ▲현 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경제사업을 주관적으로 조직하여 사회적 노동의 낭비와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

○ 금년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지도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사업태도 제시

-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결사의 각오와 의지 다지기) ▲자기 단위에게 나선 과업 무조건 수행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루는 결사의 실천력 체질화 ▲패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척결
- (실속있고 치밀한 작전과 지휘)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는 관점 견지 ▲월별, 분기별, 지표별 계획 수행을 위한 면밀한 설계와 작전 ▲노력과 기술, 자금, 자재의 효과적 동원 및 생산자들의 맡은 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 전개 ▲과학적이고 객관적 통계수자에 근거하여 책임한계를 따질 수 있도록 생산총화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총화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명백한 상벌적용
- (인재와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 ▲자체의 기술역량 제고로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과학기술을 통해 인민생활 개선, 향상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 우선 해결 ▲전략적인 첨단기술 적극 개발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 창조 ▲자기 분야에 필요한 인재는 자체로 키우는 원칙에서 인재육성사업에 깊은 관심 기울이기 ▲대담한 인재 등용과 우수한 경영인재, 관리인재 발굴
- (경제지도일군들의 실무수준 향상)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철저한 학습 ▲과학기술과 수자를 중시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 겸비
- (자립경제의 잠재력 총발동)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관점 견지 ▲자기 부문과 단위의 협소한 이익보다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먼저 생각 ▲일시적 이익이 아닌 전망적 이익 중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및 원가 절감과 증산투쟁 전개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행정경제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사업 전개 ▲보신주의, 소극성에 따라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사상투쟁 강화

⑥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방향타역할을 잘해나가자(2.22)

○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는 경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사설

- *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한 당조직들의 방향타역할은 본질에 있어서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이끌어주고 그 선상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옳게 지도하는 사업이다”

- 특히,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 관철이 중요한 만큼 당조직들의 방향타역할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

○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의 심각한 결함이 경제사업에 대한 각급 당위원회의 당적 지도 잘못에서 기인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 부과

- 행정경제일군들이 불리한 객관적 조건을 빙자하면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지 못한 결함을 특정하여 문제시
- 금년 과업수행목표인 생산정상화와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구축에 대한 당조직과 당일군들의 분발을 촉구

○ ‘월생산총화’의 중요성 강조

- 월생산총화를 실무적 총화이기 전에 당결정 관철정형을 총화하는 당회의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맞게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총화를 진행함으로써 책임과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일군들의 각성분발 독려

○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를 위한 과제들 제시

- (옳은 방법론과 구체적인 작전안 수립) ▲당중앙의 의도, 군중의 의사, 자기 단위의 현실 조건에 맞는 집행담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토의 및 채택사업 전개 ▲책임일군들부터 올해 과업 집행을 위한 효과적 방안 제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계획수행을 위한 단계별계획과 구체적 분공조직안이 포함된 결정서초안을 작성하고 당회의에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토의한 다음 당결정으로 채택

- (당정책적 요구에 맞는 행정경제사업 추동 및 편향 교정) ▲당조직들은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 태도와 방식 등 당의 경제정책집행정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장악 ▲정상적인 경제사업총화를 통해 장점과 성과는 확대하고 결점과 편향은 적시에 교정 ▲당의 경제정책집행정형을 기본으로 하여 하급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 진행
- (행정경제일군이 확고한 주견과 자신감을 갖도록 적극 지도) ▲행정경제일군들을 존중하고 정연한 행정사업체계를 세워 행정적 지시가 아래에 거침없이 내려가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유도 ▲행정경제일군들이 올해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제조직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 제고) ▲당의 노선과 현행 당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소유 ▲해당 부문의 전문과학기술지식과 경제관리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

⑦ 황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질과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2.24)

- 5개년계획 첫해 성과 달성을 통해 당의 영도적 권위를 결사보위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는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의 표출이며 만난을 과감히 돌파하며 쟁취한 값진 승리, 우리 국가가 올라선 존엄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는 열렬한 애국심의 일대 분출이다”
 - 북한의 3대 제철소의 하나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2월 22일 올해 과업 관철에 총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꺾기모임 개최
 - 이 자리에서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 펄펄 끓이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에 총매진하자' 제목으로 전국 노동자들에게 보낸 호소문 발표
 -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올해의 생산목표를 지난해의 두 배로 설정
- 5개년계획 수행에서 황철의 호소가 갖는 의미 설명

-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진군보폭을 크게 내짚어 당대회의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총성의 호소 ▲모든 사업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기 위한 애국의 호소
 - * “황철의 로동계급은 도식과 경직, 소극과 보신, 패배주의를 비롯한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 것과 단호히 결별하고 전인민적인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올해의 혁신적인 목표를 빛나게 달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이 되는 2022년을 당면 정치일정 목표로 설정
- 5개년계획을 완료하는 2025년을 정치일정 목표로 삼기에는 비교적 시간차가 크므로 상기 두 가지 정치행사를 당면목표로 정하고 올해의 성과를 독려하기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황철의 호소를 따르기 위한 과제들 제시
-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무조건 철저히 관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전승세대의 숭고한 정신세계 따라배우기 ▲맡겨진 전투계획 수행에 혼심을 다 바치는 불같은 열정, 부닥치는 난관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봐야하는 완강한 투지를 인민의 사상정신적 풍모로 만들기 ▲우리의 힘, 우리 식, 우리의 기술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 개척
 - (집단주의 위력 남김없이 발휘) ▲국가이익 우선시 원칙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집단주의 기풍 확립 ▲과업 수행 중 애로 발생 시 외부나 상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위, 연구단위, 개발단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활발히 전개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철저히 극복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진격의 돌파구 개척)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사업에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 관점과 입장 견지 ▲전 사회적인 과학기술중시 기풍 확립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전개 ▲과학과 기술에 의거한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 실현에 박차
 -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제고) ▲올해 경제과업 달성을 위한 당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 실속있게 진행 ▲당정책 집행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행정경제일군들 적극 지원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극성 등 부정적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사상투쟁 전개

⑧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2.26)

- 사상공세 강화를 통해 8차 당대회와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장애와 도전들이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사업 강화를 통해 돌파하자는 취지
 - * “지금 우리앞에는 무시할수 없는 장애와 도전들이 버티여서있다.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더욱더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사업을 확고히 선행”
- 사상공세 강화를 위한 목표와 임무 제시
 - 사상공세의 목표: 대중의 심장에 충성과 애국의 불을 지펴 당대회 결정 관철으로 총결기, 총발동
 - 사상공세의 임무: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 사상적 병집들 단호히 척결
- 사상공세 강화를 위한 당조직과 당일군들의 과제들 제시
 -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김정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와 안녕 옹호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기 위한 혁명전통교양과 신념교양 강화
 -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 고무추동) ▲과거의 심각한 결함들은 자체의 힘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인식 각인 ▲패배주의, 보신주의,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근절을 위한 사상전 전개
 - (잡사상과 이색적 생활풍조의 침습방지)
 - (교양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춘 교양사업 전개) ▲비현실적이고 과장되며 요란한 표현으로 분식하지 말고 인민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문제들을 당정책에 입각하여 설명 ▲인민들의 심적 고충을 헤아리고 쉽게 친숙해지며 한번의 정치사업으로 투쟁에 불을 지필 줄 아는 능숙함 발휘 ▲당의 사상사업방침을 단순히 아래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철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내기

//끝//